

‘따상상’ 성공에 고평가 논란... 신작게임에 성패 달려

metro 관심종목 카카오게임즈

코스닥 상장 이틀만에 시총 3위 공모가 대비 수익률 238% 달해 올해 실적상승 대비 고평가 구간 증권업계 “목표주가 3만원 안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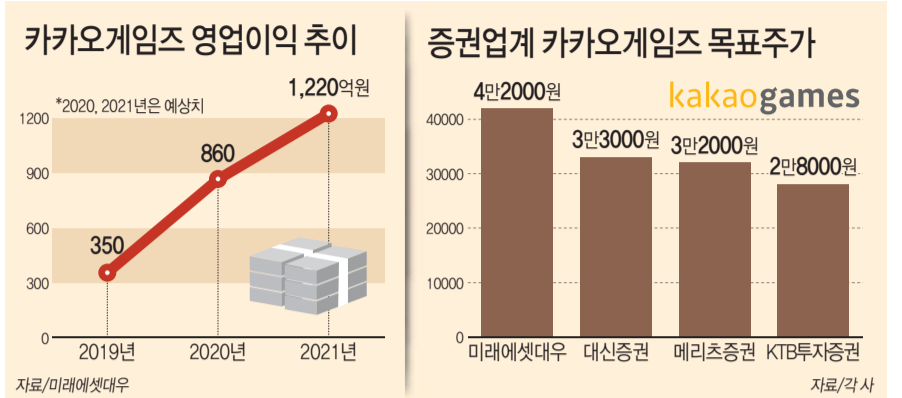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무소 전광판. 지난 10일 카카오게임즈가 코스닥시장 개장과 함께 ‘따상’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결정된 후 상장 첫날 상한가)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

카카오게임즈가 이른바 ‘따상상’ (공모가 2배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 2번)을 기록해 시총 5조9369억원, 코스닥 시총 3위로 뛰어올랐다. 다만 주가에 대한 고평가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증권업계에서 보는 카카오게임즈의 목표주가는 3만원 안팎이다.

13일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11일 8만11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지난 10일 코스닥에 신규 상장한 후 불과 이틀만에 공모가 대비 수익률은 238%다.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사상 최고치’였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 2016년 4월 다음게임과의 합병을 통해 PC게임과 모바일게임을 아우르는 퍼블리셔(배급사)로 출발했다. 이후 2017년 11월 카카

오의 게임 사업 부문을 인수, 게임 개발과 퍼블리셔를 병행하는 회사로 발돋움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카카오게임즈의 목표주가를 3만원 안팎으로 보고 있다. 대신증권은 3만3000원, 메리츠증권은 3만2000원, KTB투자증권은 2만8000원을 12개월 목표주로 제시했다. 미래에셋대우는 단기 슈팅을 감안할 때 4만2000원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증권업계에서 가장 높은 목표주가는 올해 카카오게임즈의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45.7% 증가한 86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실적 상승과 비교해

도 주가는 상당한 고평가 구간이다. 엔씨소프트, 넷마블, 펠어비스 3사의 장기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이 30배 수준인데 카카오게임즈의 PER은 400배를 넘어섰다. 현재 카카오게임즈 주가는 IPO 프리미엄과 함께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있다는 평가다. 특히 올 11월께 출시가 예상되는 ‘엘리온’은 개발 명가 크래프톤이 제작 중인 PC MMORPG(대규모 다중 사용자 온라인 롤 플레이 게임)로 ‘검은사막’의 흥행을 이어갈 대작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또 2021년 상반기까지 카카오프렌즈 지적재산권(IP)을 활용한 캐주얼게임,



모바일 기반 MMORPG 게임 등 다수의 게임 라인업을 구성해 실적 상승 기대감을 키운 상태다. 다만 카카오게임즈가 자체 개발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약점이다. 1분기 매출액 기준 카카오게임즈의 자체개발과 퍼블리싱 비중은 각각 20%, 60%를 차지한다. 넷마블, 엔씨소프트는 자체 개발 비중이 100%고, 국내 게임사들의 자체 개발 비중은 대부분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게임즈는 자체 개발 매출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 현재 매출의 40%가 검은사막, 배틀그라운드, 달빛조각사 등 상위 3개 게임이 차지하고 있다. 검은사막의 복미·유료 퍼블리싱 계약 종료 시 카카오게임즈

실적은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 결국 카카오게임즈의 주가 상승동력은 향후 출시하는 게임의 성패에 달려있다. 올해 엘리온과 내년 오딘의 성공은 카카오게임즈의 매출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대형 게임사 대비 부족한 현금성 자산을 늘릴 계기가 될 수도 있다. 김동희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오는 11월 출시될 대작 신작게임 ‘엘리온’의 성과가 중장기 주가와 실적의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2021에도 ‘오딘: 발할라 라이징(모바일 MMO)’을 비롯한 위치기반의 증강·가상현실(AR·VR) 콘텐츠 등 다양한 신작 준비하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손업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전국 6330가구 청약 접수... 절반은 경기도

분양캘린더 부산·충북 등 3곳 분양 채비

9월 셋째 주에는 전국 7곳에서 총 6330가구(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임대 포함, 도시형생활주택, 행복주택 제외)의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단 서울은 분양 물량이 없으며 경기도에서 전체 물량의 50%가 넘는 3198가구가 나올 예정이다. 13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수원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투시도’, 평택 ‘고덕신도시 제일풍경채 3차 센텀’ 등이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이들 단지는 각각 수원 삼성디지털시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가까운 직주근접 단지다. 지방에서는 광주 물량이 눈길을 끈



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 투시도.

다. 중흥토건·두산건설의 컨소시엄으로 분양되는 ‘금남로 중흥S-클래스&두산위브더제니스’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실시된다. 이 단지는 다음 주 청약 접수 단지 중 가장 많은 가구(1779가구)를 일반에 분양한다. 견본주택은 3곳이 개관한다. 부산과 충북에서는 대어급 단지들이 분양 채비

에 나선다. 각각 4470가구와 5842가구 규모의 대단지 ‘레이카운티’와 ‘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의 견본주택이 문을 열 예정이다. 이들 단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사이버 견본주택(레이카운티)과 예약제(오송역 파라곤 센트럴시티)로 운영된다. /정연우 기자 ywj964@

‘레버리지ETP 규제’ 시행 시장위축 우려 vs 건전화 기대

규제 시행 후 거래 주춤 전월 대비 20.51% 줄어

레버리지 상장지수상품(ETN·ETF)에 대한 투자요건 규제가 강화됐다. 이에 따라 신규 개미(개인투자자)들의 유입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레버리지가 아닌 상품의 유동성이 개선되고, 상품 다양성이 촉발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레버리지 ETP(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채권(ETN) 등의 신규투자자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보유해야 한다. 신용거래도 할 수 없다. 또한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의 1시간 분량 온라인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단, 기존 투자자의 경우 연말까지 규제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기본예탁금과 온라인 교육 모두 연말까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규모 커진 ETP 시장

거래금액이 무려 12조2000억원에 달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각각의 상장 기업 거래대금 합계(11조6000억원, 8조6000억원)를 모두 뛰어넘었다. 지난 7일 ‘레버리지 ETP(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 규제가 시행된 이후로는 거래량이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규제 시행 전, 9월 2~4일 3일간 ETF 12억 879만주가 거래됐다. 규제 시행 후 7~9일 3일간의 ETF 거래량은 20.51% 감소한 9억6076만주다. ◆시장 위축 vs 시장 건전화

카즘 영향 ‘코벤펀드’ 수익률 20.61%

주간펀드동향

기업공개(IPO) 새내기 주식이 좋은 성과를 내면서 코스닥벤처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13일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한 주간(9월 4~10일) 국내 주식형펀드는 0.12% 올랐다. 소수형 중에서는 액티브주식배당펀드가 1.33% 수익률로 수위를 기록했다. 설정액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전체 4404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간 가운데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펀드에서 3276

억원이 줄었다. 해외주식형펀드는 한 주간 4.63% 내렸다. 중국주식펀드가 5.68%로 가장 많이 내렸고, 인도(-3.42%), 베트남(-2.05%) 등 신흥국주식이 약세를 보였다. 섹터형에서는 미국 나스닥의 급락장이 연출되면서 정보기술섹터가 5.34% 하락했다. 설정액은 311억원 늘었다. 국가에 투자하는 펀드는 설정액이 305억원 줄었지만 정보기술섹터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섹터펀드 설정액이 200억원 늘었다. 또 북미지역에 투자하는 펀드도 589억원의 자금이 들어오면서 전체 설정액

을 늘렸다. 한 주간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국내 주식형펀드는 ‘브레인코스닥벤처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종류A’ (20.16%)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상장한 카카오게임즈가 ‘따상’ (공모가 2배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을 기록한 영향이다. 해외주식형에서는 금에 투자하는 소채펀드인 ‘I BK골드마이닝증권투자신탁1[주식]종류Ce’ (2.57%)가 수위를 기록했다. 한편 10일 기준 코스피지수는 직전 주보다 0.02% 소폭 상승한 2396.48포인트에 장을 마감했다. 선진국 주식시장을 반영하는 모건스탠리캐피탈지수(MSCI) 월드인덱스(World Index)는 전 주보다 2.39%, MSCI 신흥국(EM) 지수는 2.12% 하락했다. /손업지 기자

전국 삼성증권 연구원 “ETF의 경우 외국인투자자와 시장조성자의 거래가 포함돼 있는 반면, ETN의 경우 대부분 개인투자자와 시장조성자의 거래에 국한됐다”며 “레버리지 ETP에 대한 규제는 ETN의 거래 위축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면 시장대표지수의 활용과 자체지수산출(Self-Indexing) 허용, 해외투자수요 흡수를 위한 규제완화 등은 ETN시장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촉진책으로 작용해 적극적인 ETN 상품개발이 가능해질 것”이라 전망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